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8, 요한계시록 12-13장, 용과 두 짐승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용과 두 짐승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고 이 장의 전반적인 주요 기능은 교회
투쟁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막이나 커튼을 들어올리는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뒤에 있으며, 독자들은 경험적 현실 뒤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고, 천국의 현실을 포함하도록 확장된 현실인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로마 제국과 벌인 갈등의 이면을 볼 수 있고,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베일을 휘장으로 씌운 것입니다. 그들의 투쟁 뒤에는
메시아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백성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은 사탄이 이미 패배했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사탄의 왕국을 침범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휘젓고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장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시
축소하여 장 전체를 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 중 일부는 아들을 임신한 여인이 그 아들을
쫓고, 그 여인이 용에게 쫓기는 모습을 기록한 이 환상을 기록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와 관념 중 일부였습니다. , 아들을 삼키려고 시도하다가 좌절하거나
좌절하는 뱀의 형상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이나 뱀 같은 인물의 뒤를

쫓고 있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신화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대개 이 뱀 형상의 위협으로부터 구출됩니다.

종종 이 이야기의 일부 버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들이 자라서 돌아와서 실제로 용을 죽이거나 뱀 같은 인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토(Leto)와 아폴로(Apollo)와 파이썬(Python)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에서는 여신인 레토를 쫓는 용으로 묘사되거나 묘사되는 파이톤으로 시작하고, 파이톤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 그녀를 쫓는다.

레토는 아폴론 신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나중에 Apollo가 돌아와서 Python을 물리칩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요한의 이야기는 그 중 어떤 것보다도 정확히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요한이 반드시 자신이나 그의 독자들이 알고 있었거나 그리스어나 로마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하나의 특정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계.

요한의 이야기는 그의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 즉 실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거나 나타낸다는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반면에 이러한 다른 이야기 중 다수는 신에 관한 이야기이며 반드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John은 이러한 이야기 중 어느 특정 항목에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와 그의 독자들이 익숙했을 이야기의 여러 버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리스-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고수하고, 알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의 진정한 구현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활용하여 그 실제 버전을 보여주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과 그가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역사적으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John은 이러한 이야기에 반드시 동의하거나 구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John이 이러한 이야기의 실제 버전이나 실제 설명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존은 아마도 이 이야기들에서 몇 가지 공통된 모티프나 아이디어를 끌어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 대부분은 곧 아들을 낳을 여자와 용이나 뱀 같은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John이 묘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존이 끌어낸 배경보다 또 다른 중요하고 어쩌면 더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구약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나 악한 통치자를 상징하는 용이나 뱀 같은 인물, 바다 괴물에 대한 구약의 묘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들을 패배시키거나 이러한 용형 인물들을 죽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시편 74편 이사야 51장 9절을 비롯해 통치자나 왕국을 용형이나 뱀형 언어로 묘사하는 다른 본문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용들을 죽이고 패배시키는 것은 국가나 압제적인 통치자의 패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Lato Apollo Python 및 기타 Greco-Roman 이야기와 같이 Greco-Roman 배경과 공감하는 이야기에 대한 John의 또 다른 예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로마 배경과 비슷하면서도 구약 이야기나 구약 본문과 공감하는 이야기를 그리거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본문은 구약성경의 시작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창세기입니다. 주로 창세기 3장과 15절과 16절, 소위 원시 에반게리온이라고 합니다. 를 호출.

그러나 인류가 창조된 후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어 선악과 지식과 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자 뱀이 하와를 속이고 그 후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5절부터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인 사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 사이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치거나 상하게 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장, 16장의 이 두 구절의 주요 특징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여러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창세기의 모티프를 자주 사용하여 첫 번째 창조와 처음 창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결국 어떤 의미에서 다시 반복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장, 특히 3절부터 9절까지에서 우리는 여자와 용 사이의 적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 용이 여자를 쫓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찬송 10절부터 시작하여 그 찬송 이후에도 우리는 비록 그 여자가 출애굽기의 언어로 사막으로 떠났고 보존되고 보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이 여전히 여자를 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용과 여자, 뱀과 여자 사이의 원수를 약속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이 요한계시록 12장과 9장에서 요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용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옛 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속이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에서 사탄이 행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용을 고대 뱀 또는 고대 뱀으로 식별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창세기 3장과 분명히 연결됩니다. 따라서 뱀과 여자, 즉 창세기 15장의 뱀과 여자 사이의 갈등이나 적대감이 이야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여자를 쫓는 내용이 나옵니다.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12장부터 9장까지에서 우리는 용의 형상 곧 사탄이 아들을 뒤쫓아 삼키려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히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의 후손을 쫓아 그 여자의 후손을 멸할 것이라 뱀이 자기의 머리카락이나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부분이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나타나느니라 .

또한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 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녀가 자손을 낳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여자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과 16장에 그 모티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은 아들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의 찬송가 부분 이후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특히 14절부터 시작하여 용은 이제 그 여자를 광야로 쫓아갑니다.

그는 그녀를 쫓는 것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12장 마지막에는 용이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을 쫓느니라. 그래서 그녀의 후손은 창세기 3장에서 그의 후손인 용들과 뱀들 사이에 적의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그녀의 후손은 요한계시록 12장 끝에서 그녀의 후손을 쫓는 용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의 약속 중 일부는 뱀이나 사탄과 여자 사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적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용이 쫓는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곧 그가 쫓으나 삼키지 못하게 된 여자의 후손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먹이를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3장과 15절에 용의 후손, 뱀의 후손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그의 후손과 용의 후손, 뱀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의 후손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나는

이것이 3장이 나오는 곳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짐승은 용과 비슷하고 묘사되기까지 하며 그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즉, 13장에서는 용과 똑같이 묘사되는 두 짐승의 모습을 한 두 용의 형상을 소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용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위가 주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두 번째 짐승 역시 짐승 같은 용형 인물입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용처럼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용과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요한계시록 3장, 미안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용의 후손이라고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의 씨를 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보여주겠지만, 용의 후손인 이 두 짐승 같은 인물은 용이 여자의 후손을 쫓는 수단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장은 창세기 3장의 성취로 용이 여자의 후손을 쫓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13장은 용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용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어찌 적의가 있겠느냐? 13장의 그의 후손인 이 두 짐승 같은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요약된 이야기의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이 씨앗에 대한 강조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기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심지어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의 계보까지 씨와 자손에 대한 강조.

하지만 내 생각에는 시편이나 이사야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이 짐승, 이 바다 괴물 또는 용 같은 인물이 여러 나라와 억압적인 통치자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용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갈등이 구약 전체에 걸쳐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이제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 요약되어 있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특징은 아들이 분명히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질문할 때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존이 이야기의 모든 마지막 특징을 잡아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진 머리라는 개념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3장 13절과 3절을 보면 첫째 짐승인 용의 후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들 중 하나, 일곱 머리의 짐승, 그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것 같더니 그 치명상이 나왔더라. 13장에 이르면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다는 생각은 아마도 몇 가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의 머리가 부서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뱀의 머리가 으스러져 짐승의 형상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거나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 짐승은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요한은 용을 옛 뱀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아마도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아마도 구약의 나머지 부분, 즉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되는 투쟁에 비추어 이 본문을 읽으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은 이 투쟁을 읽는 데 필요한 배경이나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John이 한 일은 그가 본 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시 한 번 하나 이상의 배경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의 비전을 구성한 것입니다. 독자들이 익숙했을 그리스-로마 이야기 중 일부를 연상시킵니다.

아들을 낳는 여신과 그들을 쫓는 용의 형상이 벌이는 투쟁이라는 점에서도 유대와 구약의 배경을 지닌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의 요점, 특히 창세기 3장의 배경을 언급하는 요점은 단순히 다시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로마와의 투쟁, 1세기에 교회가 로마 제국과의 투쟁,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세기에 그들이 직면한 투쟁을 보면 이 투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갈등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투쟁은 그들이 로마 제국과 직면한

물리적 투쟁의 형태로 다시 표면화됩니다. 제국. 그 투쟁은 구약의 여러 지점에서 표면화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로마와 직면한 투쟁에서 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볼 때, 그들이 보는 것은 모두 경험적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커튼을 걷어올리면서 그들은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투쟁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씨와 여자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오랜 시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의 요점은 투쟁에 대한 결심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일격이 주어졌습니다.

분쇄 상처는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하여 쫓겨났으며 이제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자들, 특히 신실한 증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무엇이 위태로운지, 전투에서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12장 12장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방금 말한 내용에 비추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도 마찬가지로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이 이것을 의도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연관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내용과 그 유명한 영적인 책인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인 6장 12절에 대한 확장된 주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늘 영역의 통치자와 권세에 맞서 싸우는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특정 미덕과 동일시되는 갑옷 조각으로 이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6장 12절에는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하늘 영역의 통치자와 권세에 대한 언급은 악마적인 영적 존재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바울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신체적 갈등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당신이 직면하는 어떤 육체적 싸움이나 육체적 갈등에 집중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특히 그리스-로마 세계의 맥락에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바울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싸움은 아니지만, 다른 싸움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상세계와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엔 풀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아.

대신에 나는 바울이 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바울이 종말론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투가 지구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런 말을 무시하고 이것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로마 제국과 직면한 물리적 갈등의 진정한 본질과 진정한 갈등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갈등이 놓여 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니라

당신의 주된 싸움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직면하는 것만큼 진실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묵시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단지 로마 제국과 도미티아누스와 카이사르와 로마 황제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소아시아의 모든 지방 당국과 교회, 소아시아의 도시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전투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현재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싸움, 메시아를 패배시키려는 사탄의 시도, 지금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낸 싸움, 그리고 여자와 그 후손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갈등 뒤에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 즉 천국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은 다시 투쟁의 참된 본질을 밝히고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텍스트가 되며, 여러분의 싸움은 단지 혈과 육 즉 로마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임을 교회들에게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 영역, 주로 사탄 자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는 그의 시도는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이동합니다. 12장은 실제로 끝나거나 버전에 따라 13장이 시작되거나 12장이 끝납니다.

NIV에서 단락 구분은 실제로 1절의 13장에 있지만 정확히 12장과 13장을 어디에서 나누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13장 1절은 용이 바다 위에서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용이 바다 해안에 서서 두 명의 도우미를 소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여자의 후손을 쫓는 데 도움을 줄 두 사람을 소환할 것입니다. 따라서 12장은 용의 여자를 잡으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이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자를 쫓는다. 그녀는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자손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자와 그녀의 후손이 아마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존되고 보관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적어도 1세기에는 로마 정부라는 형태로 사탄의 손에 의해 여전히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용은 해변에서 있고, 내 생각엔 그의 유일한 의도는 여자의 후손을 쫓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두 명의 조력자를 소환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2장, 혹은 미안하지만 13장을 연대순으로 12장 다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13장은 단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추가 방법일 뿐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노립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파괴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비록 여자는 보존되었지만 그 후손은 박해를 받고, 사탄이 파괴하도록 허용되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는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같은 인물들의 도움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3장과 12장, 특히 12장 후반부, 전반부에서 우리는 그 중 많은 부분이 과거 사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12장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를 현재까지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장은 12장의 나머지 부분과 정확히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대순으로 12장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3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3장은 12장, 14장, 17장에서 사탄이 하는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도록 허락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13장에서 두 명의 요원을 통해 이를 성취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나 짐승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괴물이나 짐승이다. 잠시 후에 그것을 살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3장을 먼저 읽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 용이 바닷가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돕기 위해 다른 두 명의 짐승 같은 인물, 즉 창세기 3, 15장에 나오는 그의 두 자손을 소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열이 있고 머리 일곱이 있으며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각 머리에는 참람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했지만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았으나 그 치명상이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물었더니 짐승이 큰 말과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거처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그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 들으라 누구든지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누구든지 칼에 죽으면 곧 칼에 죽으리로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기를 대신하여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땅과 그 주민들이 치명상이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크고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권세를 받은 이적을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였느니라.

그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는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을 막론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으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또는 그 이름의 번호.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입입니다.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이제 두 짐승 같은 인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구절에 대해 두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두 짐승에 관해 두 가지 관찰을 할 것이며, 이 두 짐승은 이 장의 초점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미 12장의 앞부분에서 용에 대한 언급을 보았지만, 11장에서도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와 두 증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거하는 교회. 따라서 한 수준에서 12장은 12장과 13장이 될 것입니다. 12장뿐만 아니라 12장과 13장, 특히 13장은 11장에 있는 간략한 언급을 더욱 풀어낼 것입니다. 11장은 두 증인이 끝난 후, 그들의 증언이 끝난 후 7절부터 시작됩니다. ,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짐승이 심연에서 나오고 그는 두 증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아마도 바다와 심연 사이에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11장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더욱 자세히 풀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리고 12장에서 특히 바다와 관련된 짐승 같은 인물이나 괴물 같은 인물은 일반적으로 악과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사악하고 억압적인

개념을 언급하거나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약 전체에서 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억압적인 국가와 정부 또는 통치자를 언급하기 위해 짐승 유형의 인물이나 바다 괴물 유형의 인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이집트인데, 이집트나 파라오가 용이나 뱀 같은 형상, 바다 괴물 형상으로 자주 묘사되는 방식은 다시 혼돈과 악,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몇몇 묵시록에서는 한 마리 이상의 짐승을 언급합니다. 두 마리의 별도의 짐승 또는 두 개의 별도 괴물을 언급하는 여러 묵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나옵니다. 흔히 나오는 것, 미안한데 바다에서 나오는 것, 땅에서 나오는 것.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종종 레비아탄이라는 라벨이 붙습니다. 땅이나 육지에서 나오는 것을 흔히 베헤모스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요한이 잘 알고 있었던 유대 묵시록의 일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미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의 수와 같은 일부 이미지가 다음과 같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끝나기 전에 완료.

요한은 이를 위해 묵시적인 문헌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녹서 6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날에 두 괴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샘물 위의 바다 심연에 살기 위해 레비아탄이라는 암컷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연과 물 사이의 연결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사막이나 육지에서 가슴을 품고 있는 베헤모스라는 수컷이다. 따라서 이 에녹서 1장 본문에서 두 괴물, 리워야단과 베헤못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바다의 심연에 집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땅의 사막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하고 일반적인 묵시록인 에스라서 4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읽습니다. 4 에스라 6장과 에스라의 환상 중 하나인 4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49절부터 읽기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두 생물을 생존하게 하셨으니 하나의 이름은 베헤못이라 하시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리워야단이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창조 당시에 하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시켰을 것입니다. 너희가 일곱째 부분을 위하여 둘을 나누었고 거기에는 물이 모이고 둘을 담을 수 없더라. 그리고 삼일 만에 마른 한 부분을 베헤못에게 주셨으니 이는 창조 곧 거기서 살게 하심이니 거기에는 천 개의 산이 있고 베헤못은 그 땅에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리워야단에게는 일곱째 부분, 즉 물 부분을 주셨고, 누구든지 원하는 때에 먹도록 보존하셨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창조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창조 시 하나님께서 이 두 바다 생물 또는 바다 괴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 하나는 물이나 심연에 살고 다른 하나는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두 바다 생물에 대한 요한 자신의 설명에 대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성경의 본문에 더하여 이러한 묵시적인 본문과 두 마리의 바다 생물, 미안하지만 두 마리의 짐승 같은 형상이나 두 마리의 괴물, 즉 바다에서 온 것과 육지에서 온 두 마리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John이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적용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근원에 노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근원에 매우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또한 가능하다. 묵시적인 본문을 기억한다면, 뒤로 물러서서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둘째 짐승에 대한 언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온 것처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요한은 이것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유형의 인물임을 분명히 식별합니다. 바다와 육지와 또 다른 가능한 연결은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논평은 당신이 1세기의 이 생활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짐승을 로마 제국 이외의 다른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짐승이 구약에서 이교도의 억압적인 통치자 및 정권과 동일시되거나 동일시되는 역사로 인해 이 글을 읽는 1세기 기독교인이 이것을 억압적인 정권과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세기, 그들 자신의 생애 동안 통치했던 황제. 그리고 그것은 로마제국과 그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하나는 바다에서, 다른 하나는 육지에서 왔다는 점에서 요한이 구약성서와 에녹, 에스라와 같은 두 짐승, 리워야단과 베헤모스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다로 갈라졌거나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왔을 것, 즉 로마 자체와 황제를 회상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 땅에서 온 짐승은 말하자면 자기 땅이나 소아시아 지방의 어떤 것을 회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무엇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약성서에서 바다와 심연과 관련된 짐승의 모습과 같은 첫 번째 짐승이 이제는 억압적인 이교 제국과 그 통치자, 즉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확신합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John은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었나요? 황제와 로마 둘 다인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언급하는 것인가요? 어쨌든 첫 번째 짐승은 로마제국과 동일시되거나 동일시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 두 번째로 말해야 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요한은 세 가지 역할이 모두 깔끔하게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삼위일체의 패러디 역할을 하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 1장과 4장, 5장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소개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즉, 우리는 요한의 생각 뒤에 삼위일체적 언급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1장의 시작 부분에서도 요한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자신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사를 전하는 서신서의 서론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성령에게서 나라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곱 영인 일곱 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5장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삼위일체적 언급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장과 13장에 이르면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나중에 이 세 가지가 함께 언급되는 1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용과 짐승과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자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제 불경한 삼위일체의 형태로 참된 삼위일체의 패러디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대표합니다. 사탄은 세상과 다른 두 짐승에 대한 주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고, 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5장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성령을 패러디한 것이며, 13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될 그의 주요 임무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경한 삼위일체, 즉 참된 삼위일체를 왜곡하여 패러디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을 왜곡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와 성령에게만 속한 예배와 권위를 불법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두 짐승 뒤에 있는 언어와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포함하여 두 짐승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바다는 심연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11장 7절에 보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17장 8절에 보면 그 짐승이 다시 무저갱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다른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연과 구별하여 바다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소아시아의 독자들과 소아시아 독자들 사이의 거리를 암시하는 것처럼 바다를 다시 취하고 싶지 않다면 바다 건너편에는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기서 바다는 악의 개념을 상징한다.

바로와 출애굽의 상황을 묘사하는 시편 74장과 이사야 51장에서 본 바다 괴물의 집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 9장에서 메뚜기들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다니엘 7장도 다니엘 7장에서도 여기 13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시작한 것은 요한이 동시에 여러 구약성경 본문을 저글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언어적으로나 주제적으로나 문맥상으로 어떤 종류의 연결이 있는 텍스트를 John은 여러 구약성서의 텍스트를 취하여 일종의 모자이크를 구성하며 동시에 여러 개의 공을 계속 돌리려는 저글러와 비슷합니다. 여러 개의 접시를 동시에 회전시키려는 서커스 공연자입니다. 요한은 여러 구약성경 본문을 동시에 저글링하거나 계속 회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요한이 본 것을 말하고, 설명하고, 드러내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다니엘 7장은 구약성서의 다른 여러 본문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모자이크의 일부입니다. 이 첫째 짐승도 참람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권세와 경배를 찬탈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 짐승과 로마제국. 그것은 황제가 신임을 주장하는 일부를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미티아누스는 신성과 예배와 명예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요한은 아마도 우상 숭배적인 주장, 로마의 왜곡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도 이미 언급했지만, 나는 이 짐승이 12장의 용과 똑같이 묘사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큰 힘, 큰 권위, 큰 힘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John이 이 짐승을 가지고 행하는 한 가지 독특한 일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다니엘 7장을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인자 환상의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면, 인자가 나타나기 전에 요한은 실제로 네 명의 짐승 같은 형상을 봅니다. 모두 네 개의 제국이나 네 명의 황제 또는 통치자를 상징하고 대표하며, 그 왕국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가려집니다. 인자는 이제 권세와 나라를 받느니라. 하지만 다니엘 7장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 그 짐승은 그의 짐승 같은 성격으로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본 짐승으로도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그래서 요한은 짐승을 보고 표범과 곰과 사자와도 닮았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대략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 형상, 즉 네 개의 형상 또는 네 짐승의 형상에 해당합니다. 차이점은 다니엘이 사람의 아들로 이어지는 네 개의 별도 왕국을 대표하는 네 개의 별도의 짐승을 본 것인데, 여기서 요한은 이제 모든 것을 합쳤습니다. 그 중 네 개가 하나의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짐승, 과거의 모든 짐승, 과거의 모든 왕국이 이제 합쳐져 1세기 로마 제국의 형태로 등장한 이 최종 표현으로 포장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모든 왕국과 통치자들을 모으고 심지어 일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더 약하고 더 억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단지 로마가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그는 로마의 진정한 성격과 성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그것이 주장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안전을 가져다 준 놀라운 거대 제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 뒤에는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압제하며, 폭력과 유혈을 통해 제국을 유지하는 제국의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며, 짐승 같은 성격의 허울일 뿐입니다. . 그래서 이제 요한은 로마제국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흉측한 짐승이고, 이 짐승 뒤에는 사탄 자신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사탄과 같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끔찍한 짐승이다. 13장 2절에서는 용의 권세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운반이 허용되었으며, 땅에서 그의 권위를 수행하도록 용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패배했지만 우리는 사탄이 이미 패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지금 분노와 분노로 행동하고 있으며, 이제 로마제국을 통해 억압적이고 기만적인 권위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짐승의 특징 중 하나가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처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으며 이것은 13장에서 두 번 더 반복됩니다.

자세히 보면 짐승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3장과 15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구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읽은 구절인 이사야서 27장과 1절에서 주님은 그날에 그의 맹렬하고 크고 강력한 칼로 벌을 내리시리니, 그는 날아다니는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나중에 13장에서는 그 짐승이 칼에 상처를 입은 자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번 읽은 이사야서 27장과 시편 74장과 같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괴물을 죽이거나 찌르신다는 개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7장 1절에는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칼로 괴물을 죽인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은 괴물을 죽이는 이 모티브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괴물의 머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그러나 또한 3장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John이 이 상처나 타격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맥 내에서, 특히 5장에 비추어, 특히 12장에서 우리가 말한 내용에 비추어,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역사적 맥락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12장에서 사탄이 패배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맥은 창세기 3장, 이사야서의 성취에서 짐승이 죽고 부활했을 때 이 죽음의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27 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 상처는 치명적이었지만 이제 그 짐승은 그 상처에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모든 창조물이 그분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에 인식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칼로 용을 찌르시고 죽음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신다는 구약의 개념에 더해 일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제 짐승의 치명상을 담당하는 짐승의 머리,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이 개념이 서기 68년 네로의 죽음을 반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서기 68년에 네로는 도망쳐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로마제국을 내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은 갈등과 혼란에 빠졌으나 로마는 분명히 그로부터 회복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때문에 제국이 무적처럼 보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치명타에서 회복한 듯 보였고, 이제 제국은 무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으며, 우리는 John이 Nero를 둘러싼 이러한 전통, 특히 자신의 죽음과 자살을 둘러싼 전통을 알고 있었을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비록 John이 독자들과의 연결에 대한 두려움과 이해로 그것을 끌어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John의 프레젠테이션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죽음의 타격을 다루는 지배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네로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시 활용하여 로마 제국을 치명적인 일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회복되어 무적이 되어 나머지 세계가 추격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짐승,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두 번째 짐승과의 관계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는 이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1세기 독자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용과 두 짐승입니다.